

사설

전통사찰 증·개축 '신중'

국가에서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거나, 문화 보존을 위한 지역으로 특별히 선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의 전통적 건축 양식을 그나마 온전하게 보존해 오고 있는 곳이 전통사찰이다. 서구화의 물결에 휘말려, 또 아직 문화적 전통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으로 곱잡을 수 없이 전통적 유산들이 소실되어 가는 이 시대에, 불교의 율터 속에서 그대대로 보존되어 가고 있는 전통사찰은 미래의 세대에 한국 전통건축의 맥을 전해 줄 더더욱 소중한 유산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사찰들마저 무분별한 증·개축에 휘말려 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해 가고 있다. 전국의 전통사찰 가운데 그나마 100여개 만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은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문화유산은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 아직도 경제논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듯하지만, 그러한 시대는 오래 가지 않는다. 절대적 빈곤이 해소된 21세기는 문화의 시대가 될 것이고 또 되어야 한다. 이런 조류로 미루어 본다면 전통사찰이야말로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꾀한 건축 문화의 모범 답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불가피한 경우라도 건물 자체의

보존은 물론, 그 주위 환경과의 본래적인 조화를 깨뜨리지 않도록 전문가의 철저한 검증과 조언을 거쳐 증·개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증·개축의 경우 사전 심의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는 지금의 제도를 좀더 강화하여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일선 사찰의 책임자도 무분별한 대형공사 위주의 불사공사를 지양하고 문화 보존의 중요성을 우선하여 사찰의 보수, 유지, 확장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교 자체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노력만으로는 소중한 우리의 건축 문화를 지켜가는데 한계가 있다. 문화 유산을 보호 유지하는 당해사찰들이 무조건 불련과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지금의 문화재 보호 정책이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들에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문화 중시의 풍토를 조성하고, 또 직접적인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 유지 보수에 필요한 구체적 지원이 있어야만 한다. 국가와 온 국민을 대신하여 소중한 유산을 보존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그만큼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감시 일변도로 문화재를 보존하려 하던 기존의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보존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기를 촉구한다.

포교사단 '생명나눔' 실천

지난 12일 조계종 포교사단이 출범하면서 포교사 1천166명이 화강유언과 함께 장기기증을 서약했다. 6년전 불교계에서 첫걸음을 내디딘 '생명나눔 실천운동'이 이제 포교사단에 의해 앞으로 본격적인 생명나눔의 실천으로 변저는 모습을 주목해 보고 싶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육신공양도 마다하지 않는 불교의 가르침이다. (화엄경)에도 "불자여, 보살마하살은 필요한 사람이 눈 귀 코 혀 머리 손발 혈액 뼈 심장 간장 신장을 요구하면 기쁜 마음으로 이를 베풀어 준다"고 했으며 그밖에도 육신공양의 고귀함을 전하는 경구들이 적지 않다.

이처럼 훌륭한 가르침을 받고 있는 불교계이지만 그동안 '나눔의 삶' 실천과 그 사회적 성과는 드러내 자랑할만한 것이 못된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포교사단이 조계종 사찰들을 통해 장기기증과 화강유언을 국민적 캠페인으로 퍼나갈 방침임을 밝힌 것에 우리는 기대를 갖게 된다.

마침 지난 2월 뇌사를 인정하는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땅에도 장기기증이 합법되어 사회적으로 장기기증이 보다 활성화

되기를 바라고 있다. 포교사단의 화강유언과 장기기증서약은 이같은 사회적 요구에 대한 적극적 응답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한편 장기기증 운동은 불교등 종교계가 앞장서지 않으면 앞으로의 기증 문화를 올바르게 세워 나가기 어렵다. 사람의 장기 하나 상용이 되었을 때 '생명존중'이라는 고귀한 취지는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인명경시 풍조를 만들어 낼 우려 또한 없지 않다. 여기서 도덕적 기준이나 장기에 대한 존엄성 지키기, 장기이식에 관한 새로운 가치관 확립 등이 필요해진다. 포교사단은 이점 또한 소명(召命)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생명을 구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의학과 종교는 그 뿌리를 같이한다. 장기이식등 의학의 발달은 이제 의학과 종교를 하나의 장(場)에서 만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의학이 사람의 생명연장에 집착하는 것이라면 불교는 '죽음의 극복'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그 방향은 다르다. '육신보신'에는 육신에 대한 무상함의 관찰과 무상함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열린마당

불교학과 학생부족

새학기가 시작됐지만 동국대와 위덕대 등 종립대 불교학부(과)의 출발이 순조롭지 못하다.

위덕대는 불교학과 40명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고, 올해부터 전과(轉科)제도의 제한규정이 폐지된 동국대 불교학부는 18명이 다른 학과로 전과했다. 동국대는 학부제가 실시된 96년 이후 매년 전체정원의 30%에 이르는 불교학부 학생들이 전과를 했다. 또 지난 97년 대학원 중심제로 특성화하면서 학부 정원도 80명에서 70명으로 축소되는 등 종립대학의 면모를 상실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위덕대의 경우는 그나마 학교와 진각종의 긴밀한 협조로 올해 졸업생 전원을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하고 있지만, 정원미달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다. 불교학의 위기는 불교의 위기를 가져온다. 종립대 불교학부(과)의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편집자 주>



동국대 불교대학발전연구위원회는 17일 동국대 상록원에서 앞으로 공청회 개최 등 불교대학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종립대 특성 못살려 위기"

현각<동국대 불교대학발전위 위원장>

교육은 백년대계다. 그러나 그동안 대학의 교육정책은 자율화라는 허상을 좇아 과오를 저질러 왔다. 학부제 실시이후 불교대학이 직면한 여러 문제들도 여기서부터 발생했다고 본다. 종립대학이라는 특수성을 살리지 못한채 교육부의 교육정책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동국대 불교대학은 이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교대학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월 24일 불교대학내 불교, 인철, 선학과 교수 14명으로 불교대학발전연구위원회를 구성했다. 불교대학발전연구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매주 한차례씩 회의를 갖고,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 결과 17일 회의에서 불교대학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우선 스님인성 선별·학과 신설 및 장학제도 △학부·대학원 연계 교과목 개정 및 개발 △불교문화연구원 활성화 △취업대책 및 불교대학 공간이전문제 등 4개 연구분야로 나뉘어, 4월 말까지 조사를 마친후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구체적인 공청회 일정을 정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대학당국과 교수, 학생 등 모두가 참여해 불교대학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그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여기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여름과 겨울방학동안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도 학사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불교심리학, 성보문화사관리학, 포교학 등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의 학과 신설과 문제가 되고 있는 전과제도 또한 대안을 모색해 해결해 나갈 것이다.

"우수학생 유치 여건 절실"

장익<위덕대 불교학과 교수>

대학의 목적이 교육과 연구인 만큼 우수학생들이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교계 전체에서 불교학적 진흥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불교학의 발전은 불교의 발전과 직결된다. 그러나 현재의 풍토는 불교학 자체에 관심이 없고, 그에따른 발전계획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학교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종단과 불교계의 각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같은 각성이 인재육성분산인 교육에 반영되고, 불교학을 진흥시키는 힘이 된다. 이를 위해 각종 장학제도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육성된 인재들을 다시 불교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립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한 다양한 불교영역의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의 교과과정내에서 다룰 수 없는 분야들을 특강 및 실습 등을 통해 활성화 해야 한다. 이는 응용불교적 차원에서 학생들이 시대에 필요한 능력과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열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위덕대 불교학과의 경우는 1년 전부터 교수와 학생을 주축으로 교육, 행정, 문화, 복지 등의 분야별 연구회를 결성해 주 1회 모임을 갖고 있다.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계지어 고민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의도다. 그러나 이같은 활동들도 임시대처방안에 불과하다. 불교학 진흥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학부제 폐지·장학금 확대"

심재관<동국대 인도철학과 박사수로>

종립대학의 면모를 되찾고 불교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부제를 폐지해야 한다. 학부제는 설립당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학과제 실시때만 해도 1학년때 전공기초를 공부하고, 3학년 정도면 원전강독 등 보다 심층적인 전공공부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96년 학부제 실시 이후 전공기초를 3학년이 되어야 시작하고 있다. 학교당국에서는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운영한다는 정책을 내세우지만 학부 때 배워야 할 것을 대학원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만큼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러나 학부제를 없애면 학교자체의 평가가 저하되고, 각종 교육심사에서 등급이 떨어지고, 이로인해 지원도 적어지게 되는 등의 문제로 무리하게 학부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학부제의 취지도 제대로 못살리고, 불교대학의 특성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의 교육정책에 무조건적으로 따라가기 보다는 불교대학을 특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학교를 교육비즈니스 정도로만 인식해 운영하다 보니 순수학문을 공부하러 오는 이들조차 피해를 본다.

불교공부를 하겠다고 오는 학생들에게 장학제도 등으로 특혜를 주고, 졸업하면 포교사자격을 주거나 종단 또는 각 불교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전과제도는 불교대학 입학시부터 전과 불가 등의 조건을 달아서 전문적으로 불교를 공부할 의지가 있는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3월13일,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수계 법회가 열리는 부처님 출가절. 이날 용성스님 열반 60주기에 맞춘 서초동 우면산 대성사의 수계법회는 그 어느 때보다 뜻깊고 결연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계사인 회주 도문스님이 "용성 조사님의 유흔 10사목 가운데 제 8사목을 완수했습니다"라는 고백의식 순서에 이르러서는 법회열기가 절정에 달했다.

31운동 33년의 한복으로 독립운동가이며 대각불교운동의 선구자인 용성스님은 대중불교 생활불교의 실현을 위해 10가지 유흔을 남겼다. 그 8번째가 '3귀의 5계 수계법회를 통하여 수계자가 1백만명이 넘도록 할 것이며, 이 수계자에게 아들이나 내지 손자 대나 증손자에게 가서 한 아들이나 한 손자 한 증손자를 잘 낳아서 잘 기르고 잘 가르쳐서 부처님전



목탁소리  
위영란 <뉴미디어부장>

수계 일련번호 1,060,749호

에 바쳐 출가 봉공제하라"는 내용인데 이번엔 그 가르침을 완수하게 된 것이다. 13일 출가절, 맨 마지막 수계자의 일련번호는 제 1백6만7천49호. 이 번호에는 89년여동안 용성·동한·도문 스님으로 3대의 계대(戒代)를 이어온 원력

이 담겨있다. 용성스님이 1911년부터 열반에 든 1940년까지 3만여명에게 계를 주었고 그 수계자인 동한스님이 이어 41년부터 60년까지 3천여명에게 전계하였으며, 그 수계자 도문스님이 61년부터 이날까지 1백만명이 넘도록 수계법회를 가져온 결과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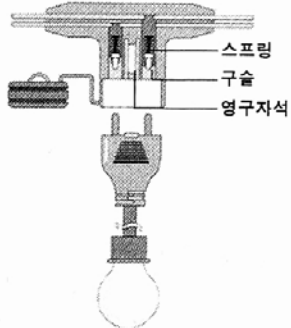
수계의식예대가 추가로 용성스님의 유흔인 "아들이나 손자 증손자 대에 가서 한 아들이나 한 손자 한 증손자를 잘 낳아서 잘 기르고 잘 가르쳐서 부처님전에 출가 봉공제하라"는 다짐을 확인한다. 즉 계사가 이 구절을 큰소리로 낭송하면, 수계자들은 "네"라고 답하고 이어 수계연비가 실시되는 것이다.

수계일련번호 1,060,749호가 오늘의 교계 현실에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온다. 요즘처럼 출가정신이 퇴색 내지는 실종돼 출가정신을 회복하려는 교계 분위기에선 집안의 한 사람이라도 출가자를 내리는 강한 자신감과 큰 원력을 만나게 된다. 또한 사제도 반지간 등 승가 구성원내의 신의가 추락해가는 현실에서, 은사의 유흔을 평생 수행길의 나침반으로 삼아 반드시 실현하려는 그 제자의 승고한 뜻이 귀하게 빛을 발하고 있다.

연등 배선의 혁신

연등배선의 혁신

새로운 방식(자석식)의 제품으로 연등배선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 일체형도 생산합니다.

인전하게 제작에서 「시공」까지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규격

- 범당용 - 30cm, 40cm, 50cm
- 외부용 - 1M, 1.5M, 2M, 3M

※ 주문시 간격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용도 · 사찰 연등용

특징

1. 불자 기업으로서 큰 표시를 하였습니다.
2. 자석의 특성을 살려 배선의 설치 및 수거가 용이 합니다.
3. 영구자석을 사용하였으므로 자력이 강합니다.(자력2.5Kg)
4. 접촉불량이 없으며 감전의 위험이 없습니다.
5. 한국·일본 동시 특허 출원
6. 기존의 제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자석식)의 제품으로 사찰용도 전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 시공시 조광기를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생각하는 기업  
**S2 신성** TEL: (02)993-8903-4 / H.P: 011) 367-3786  
서울시 도봉구 창1동 667-117호 FAX: (02)993-8905

공장 0341) 988-1688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마송리 14-22

삼·부·농·산·은·습·기·재·배·삭·초·만·술·생·산·하·고·있·습·니·다.

97.11.6/99.9.2 MBC-TV "고향은 지금"  
99.9.24 KBS-TV "6시 내고향"  
99.7.10 SBS-TV "모닝와이드" 방영

자연은 거짓이 없습니다!

무병장수를 바라는 마음 향토삼백초에 의지하십시오 ...



삼불초의 놀라운 성분들

향 토삼백초에는 '수용성 탄닌' 플라본계 물질, 유효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를 맑게하여 혈행을 돕고 모발혈관을 보호하며, 강력한 이노작용으로 체액순환과 해독작용을 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또 장의 연동력으로 속변 등 몸안의 노폐물을 신속히 제거하고 변비를 없애줍니다.

이런분들께 좋습니다

- ▶ 항상 머리가 개운치 않고, 의욕이 없으신분
- ▶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
- ▶ 숙이 편치 않으신 분
- ▶ 똥변이 시원치 못하신 분
- ▶ 피부미용과 여성질환으로 고민하시는 분
- ▶ 식수공해가 걱정되시는 분
- ▶ 팔다리가 아프신 분



大悟居士 (김봉식 원장)

차나 술처럼 드시고 자주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향토삼백초는 믿을 수 있습니다. 손님 접대나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삼부농산**  
SAM BU Farm

경남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 0598)945-0075~7 http://www.teafarm.com